2024 농식품 국가정보조사
네덜란드

2024.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수출푸드테크정보부

1 국가 및 시장정보

1 국가 개황
- 1-1 국가 개관
- 1-2 경제지표
- 1-3 농업현황
- 1-4 FTA 체결현황

2 식품 시장규모

3 식품 소비규모
- 3-1 1인당 식품 소비액
- 3-2 1인당 식품 소비량

4 식품 시장전망

5 식품 수출현황
- 5-1 수출국
- 5-2 수출품목

6 식품 수입현황
- 6-1 수입국
- 6-2 수입품목

7 對네덜란드 한국산 수출현황
- 7-1 부문별 수출현황
- 7-2 수출품목

2 식품 유통현황

1 오프라인 유통현황
- 1-1 오프라인 유통채널 규모
- 1-2 오프라인 유통채널 매장 수
- 1-3 오프라인 유통채널 브랜드 점유율
- 1-4 주요 오프라인 유통채널

2 온라인 유통현황
- 2-1 온라인 유통채널 규모
- 2-2 온라인 유통채널 점유율 규모
- 2-3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3 유통채널 전망
- 3-1 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망
- 3-2 온라인 유통채널 전망

3 수출품목 및 소비트렌드

1 수출품목
- 1-1 수출품목 선정기준
- 1-2 한국산 수출품목

2 소비트렌드

4 수출절차

1 수출입절차

2 통관 및 검역제도

3 수출가능·불가능품목
- 3-1 수출가능품목
- 3-2 수출불가능품목

5 비관세장벽

1 라벨링제도
- 1-1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 1-2 라벨링 예시

2 인증제도

3 통관거부사례

4 비관세장벽 이슈

6 요약

1 보고서 소개

1 국가 및 시장정보

1.1 | 국가 개황

1.1.1 국가 개관

인구 (2024년 추정치)	17,772,378명, 전 세계 71위
민족구성 (2021년 추정치)	네덜란드인 75.4%, 유럽인(네덜란드인 제외) 6.4%, 터키인 2.4%, 모로코인 2.4%, 수리남인 2.1%, 인도네시아인 2%, 기타 9.3%
언어	네덜란드어(공용어), 프리슬란 지방의 프리슬란어(공용어)
종교 (2019년 추정치)	로마 가톨릭 20.1%, 개신교 14.8%(네덜란드 개혁, 네덜란드 개신교, 칼뱅주의 포함), 이슬람교 5%, 기타(힌두교, 불교, 유대교) 5.9%, 무교 54.1%
연령구조 (2023년 추정치)	0~14세: 15.2% (남성 1,384,142명/여성 1,312,455명) 15~64세: 64.1% (남성 5,750,034명/여성 5,640,691명) 65세 이상: 20.7% (2024년 추정) (남성 1,709,924명/여성 1,975,132명)
중위연령 (2022년 추정치)	전체: 42.2세, 전 세계 44위 남성: 40.9세 여성: 43.5세

*출처: CIA Factbook(2024.09.)

1.1.2 경제지표

실질GDP (2021년 달러 기준)	$1.24조 (2023년 추정치), 전 세계 27위 $1.238조 (2022년 추정치) $1.187조 (2021년 추정치)
실질GDP 성장률	0.12% (2023년 추정치), 전 세계 186위 4.33% (2022년 추정치) 6.19% (2021년 추정치)
1인당 실질GDP (2021년 달러 기준)	$69,300 (2023년 추정치), 전 세계 18위 $70,000 (2022년 추정치) $67,700 (2021년 추정치.)

*출처: CIA Factbook(2024.09.)

1.1.3 농업현황

농업 GDP 비중 (2023년 추정치)	1.5%
주요동 생산품 (2022년 추정치)	우유, 사탕무, 감자, 돼지고기, 양파, 밀, 닭고기, 토마토, 당근/순무, 염소젖

*출처: CIA Factbook(2024.09.)

1.1.4 FTA 체결현황

<FTA 체결현황>

구분		내용
네덜란드의 체결현황[1]	기체결(발효)	EFTA, EAEU, 베트남, 영국, 우크라이나, 튀니지, 시리아,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세르비아, SADC, 팔레스타인, PA, OCT,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모로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멕시코, 레바논, 한국, 요르단, 일본,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가나, 조지아, 페로제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CARIFORUM, 캐나다, 카메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제리, 알바니아, CEFTA, ESA, 중앙아메리카
우리나라와의 체결현황[2]	발효	한-EU FTA
	서명/타결	해당사항 없음
	협상 중	해당사항 없음
	재개·개시·여건조성	해당사항 없음

1) 2024.01. 기준
2) 2024.09. 기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1.2 | 식품 시장규모

1.2.1 식품 시장규모

개요

네덜란드 식품 시장은 2019년 421억 달러에서 연평균 5.9% 성장하여, 2023년 531억 달러로 증가했다.

육류

육류 시장규모는 2019년 82억 달러에서 연평균 7.7% 성장하여, 2023년 11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3년 육류 시장규모는 전체 식품 시장의 20.7%를 차지했다.

베이커리 및 곡물류

베이커리 및 곡물류 시장규모는 2019년 73억 달러에서 연평균 4.5% 성장하여, 2023년 87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3년 베이커리 및 곡물류 시장규모는 전체 식품 시장의 16.5%를 차지했다.

낙농품

낙농품 시장규모는 2019년 63억 달러에서 연평균 6.7% 성장하여, 2023년 82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3년 낙농품 시장규모는 전체 식품 시장의 15.5%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품목별 식품 시장규모(2019~2023)>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YoY (22/23)	CAGR (19/23)
전체	42.1	44.2	48.7	50.8	53.1	100.0	4.4	5.9
육류	8.2	8.7	9.7	10.4	11.0	20.7	5.6	7.7
베이커리 및 곡물류	7.3	7.7	8.5	8.4	8.7	16.5	3.6	4.5
낙농품	6.3	6.7	7.4	7.8	8.2	15.5	5.1	6.7
채소류	5.1	5.3	5.9	6.2	6.4	12.1	3.1	6.1
과일 및 견과류	4.4	4.6	5.1	5.4	5.5	10.4	3.0	6.0
스낵류	4.0	4.0	4.5	4.5	4.7	8.8	5.4	3.9
편의식품	1.8	1.9	2.1	2.2	2.3	4.4	4.0	6.7
수산물	1.7	1.8	2.0	2.0	2.1	4.0	3.9	5.7
펫푸드	1.1	1.2	1.3	1.3	1.4	2.5	4.7	4.3
유지류	0.9	1.0	1.1	1.1	1.1	2.1	3.7	5.1
소스 및 향신료	0.8	0.9	0.9	1.0	1.0	2.0	5.1	6.4
영유아식품	0.3	0.3	0.3	0.3	0.3	0.6	6.9	4.5
스프레드 및 당류	0.2	0.2	0.2	0.2	0.2	0.4	4.5	3.6

*출처: STATISTA(2024.07.)

1.3 | 식품 소비규모

1.3.1 1인당 식품 소비액

개요

2023년 네덜란드의 1인당 식품 소비액은 2019년 약 2,426달러에서 연평균 5.6% 증가한 약 3,012달러로 집계되었다.

육류

2023년 육류 소비액은 2019년 1인당 약 471달러에서 연평균 7.3% 증가한 약 625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식품 소비액의 20.7%를 차지했다.

베이커리 및 곡물류

2023년 베이커리 및 곡물류 소비액은 2019년 1인당 약 422달러에서 연평균 4.1% 증가한 약 496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식품 소비액의 16.5%를 차지했다.

낙농품

2023년 낙농품 소비액은 2019년 1인당 약 364달러에서 연평균 6.3% 증가한 약 466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식품 소비액의 15.5% 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품목별 1인당 식품 소비액(2019~2023)>

(단위: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YoY (22/23)	CAGR (19/23)
전체	2,426.0	2,538.0	2,785.0	2,894.0	3,012.0	100.0	4.1	5.6
육류	471.2	497.8	552.4	593.1	624.5	20.7	5.3	7.3
베이커리 및 곡물류	422.4	442.4	483.6	480.3	496.1	16.5	3.3	4.1
낙농품	364.4	383.0	420.6	444.3	465.6	15.5	4.8	6.3
채소류	291.4	305.9	335.2	353.9	364.0	12.1	2.9	5.7
과일 및 견과류	252.2	264.8	290.1	305.6	313.7	10.4	2.7	5.6
스낵류	231.8	230.6	256.4	253.2	266.0	8.8	5.1	3.5
편의식품	103.4	108.9	119.8	127.6	132.4	4.4	3.8	6.4
수산물	98.1	102.8	112.4	116.1	120.1	4.0	3.4	5.2
펫푸드	65.6	70.6	72.2	73.2	76.7	2.5	4.7	4.0
유지류	52.2	54.9	60.2	60.6	62.7	2.1	3.4	4.7
소스 및 향신료	46.9	48.9	53.2	56.5	59.2	2.0	4.7	6.0
영유아식품	15.1	15.6	16.5	16.3	17.7	0.6	8.6	4.1
스프레드 및 당류	11.3	11.5	12.2	12.8	13.2	0.4	3.4	4.0

*출처: STATISTA(2024.07.)

1.3.2 1인당 식품 소비량

개요

2023년 네덜란드의 1인당 식품 소비량은 2019년 약 671kg에서 연평균 0.3% 증가한 약 678kg으로 집계되었다.

베이커리 및 곡물류

2023년 베이커리 및 곡물류 소비량은 2019년 1인당 약 205kg에서 연평균 0.7% 감소한 약 200kg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식품 소비량의 29.5%를 차지했다.

채소류

2023년 채소류 소비량은 2019년 1인당 약 145kg에서 연평균 0.4% 증가한 약 147kg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식품 소비량의 21.7%를 차지했다.

낙농품

2023년 낙농품 소비량은 2019년 1인당 약 98kg에서 연평균 1.1% 증가한 약 102kg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식품 소비량의 15.1%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품목별 1인당 식품 소비량(2019~2023)>

(단위: kg,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YoY (22/23)	CAGR (19/23)
전체	671.1	677.8	682.8	670.3	678.2	100.0	1.2	0.3
베이커리 및 곡물류	205.4	208.2	210.0	197.9	200.0	29.5	1.1	-0.7
채소류	144.7	145.1	145.6	146.1	146.9	21.7	0.5	0.4
낙농품	98.1	99.7	100.6	101.3	102.4	15.1	1.1	1.1
과일 및 견과류	66.8	67.0	67.0	67.1	67.3	9.9	0.3	0.2
육류	45.3	46.3	47.3	48.2	49.6	7.3	2.9	2.3
스낵류	36.0	34.7	35.6	33.5	34.4	5.1	2.7	-1.2
펫푸드	30.0	31.6	31.3	31.4	32.4	4.8	3.2	1.9
편의식품	19.2	19.5	19.7	19.9	20.2	3.0	1.2	1.3
유지류	10.4	10.5	10.5	10.0	10.0	1.5	0.9	-0.8
소스 및 향신료	5.5	5.4	5.2	5.2	5.3	0.8	2.3	-1.0
수산물	4.6	4.6	4.6	4.5	4.6	0.7	1.5	0.1
스프레드 및 당류	4.0	3.9	3.8	3.8	3.9	0.6	1.6	-0.7
영유아식품	1.3	1.3	1.4	1.3	1.3	0.2	1.5	1.0

*출처: STATISTA(2024.07.)

▌1.4 | 식품 시장전망

1.4.1 식품 시장전망

개요

네덜란드 식품 시장규모는 2023년 이후 연평균 4.0% 성장하여, 2027년 621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육류

육류 시장규모는 2023년 이후 연평균 4.5% 성장하여, 2027년 131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베이커리 및 곡물류

베이커리 및 곡물류 시장규모는 2023년 이후 연평균 4.1% 성장하여, 2027년 103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낙농품

낙농품 시장규모는 2023년 이후 연평균 5.2% 성장하여, 2027년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네덜란드 품목별 식품 시장규모 전망(2023~2027)>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중 (27)	YoY (26/27)	CAGR (23/27)
전체	53.1	55.3	57.5	59.8	62.1	100.0	3.9	4.0
육류	11.0	11.5	12.1	12.6	13.1	21.1	4.3	4.5
베이커리 및 곡물류	8.7	9.1	9.4	9.8	10.3	16.5	4.5	4.1
낙농품	8.2	8.7	9.1	9.6	10.0	16.2	4.9	5.2
채소류	6.4	6.6	6.8	7.1	7.3	11.7	3.0	3.2
과일 및 견과류	5.5	5.7	5.9	6.0	6.2	10.0	2.6	2.9
스낵류	4.7	4.9	5.1	5.3	5.4	8.7	3.2	3.7
편의식품	2.3	2.4	2.5	2.6	2.7	4.4	3.8	3.8
수산물	2.1	2.2	2.3	2.3	2.4	3.8	2.2	2.8
펫푸드	1.4	1.4	1.5	1.5	1.6	2.5	3.3	3.7
유지류	1.1	1.2	1.2	1.2	1.3	2.1	3.2	3.6
소스 및 향신료	1.0	1.1	1.2	1.2	1.3	2.0	5.8	5.1
영유아식품	0.3	0.3	0.3	0.4	0.4	0.6	5.6	5.2
스프레드 및 당류	0.2	0.2	0.3	0.3	0.3	0.4	4.0	3.1

*출처: STATISTA(2024.07.)

▌1.5 | 식품 수출현황

1.5.1 수출국

개요

2023년 네덜란드의 식품 수출액은 약 1,252억 5,6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수출액은 2019년 약 989억 7,734만 달러에서 연평균 6.1% 증가했다.

對한국 수출

한국으로의 식품 수출 비중은 0.5%로, 수출 상위 27위에 위치한다.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7% 감소한 약 6억 7,83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한국으로의 식품 수출액은 2019년 이후 연평균 13.2%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

독일로의 식품 수출 비중은 24.3%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약 304억 9,378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독일로의 식품 수출액은 2019년 이후 연평균 4.9% 증가했다.

벨기에로의 식품 수출 비중은 12.2%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약 152억 5,353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벨기에로의 식품 수출액은 2019년 이후 연평균 8.3% 증가했다.

이 밖에도, **프랑스(8.7%), 영국(7.8%), 이탈리아(3.8%)** 등으로 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수출국 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YoY (22/23)	CAGR (19/23)
전체		98,977,341	102,096,315	116,614,913	117,905,558	125,256,095	100.0	6.2	6.1
1	독일	25,198,838	26,717,611	30,240,040	29,043,129	30,493,775	24.3	5.0	4.9
2	벨기에	11,088,164	11,272,394	13,292,109	13,998,122	15,253,530	12.2	9.0	8.3
3	프랑스	8,101,034	8,093,133	9,758,105	9,779,023	10,835,539	8.7	10.8	7.5
4	영국	9,259,317	9,278,791	9,864,330	9,387,860	9,812,883	7.8	4.5	1.5
5	이탈리아	3,528,232	3,325,421	4,053,291	4,248,007	4,793,425	3.8	12.8	8.0
6	스페인	2,911,095	2,834,700	3,556,900	3,824,401	4,522,380	3.6	18.3	11.6
7	폴란드	2,729,383	2,923,911	3,595,973	3,437,511	4,016,742	3.2	16.9	10.1
8	중국	3,145,996	3,870,227	3,783,772	4,063,685	3,248,981	2.6	-20.0	0.8
9	미국	2,622,786	2,782,233	3,071,941	3,180,266	3,130,089	2.5	-1.6	4.5
10	스웨덴	2,187,908	2,143,052	2,502,971	2,618,375	2,747,115	2.2	4.9	5.9
				:					
27	한국	412,437	486,427	718,086	795,048	678,300	0.5	-14.7	13.2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2024.07.)

1.5.2 수출품목

개요

2023년 수출액 기준 **조제식료품, 치즈(기타), 감자, 영유아 조제식료품, 파종용 채소 종자** 등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수출품목

조제식료품 수출 비중은 3.1%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약 39억 1,375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5.6% 증가했다.

치즈(기타) 수출 비중은 3.0%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약 37억 4,17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4.5% 증가했다.

감자 수출 비중은 2.2%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7% 증가한 약 28억 1,370만 달러로 2022년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11.8% 증가했다.

영유아 조제식료품 수출 비중은 1.9%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8% 감소한 약 24억 538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0.9% 감소했다.

파종용 채소 종자 수출 비중은 1.8%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약 22억 607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5.0% 증가했다.

이 밖에도, **신선·냉장 쇠고기(1.7%), 맥주(1.7%), 무변성 에틸알코올(1.4%)** 등을 수출했다.

<네덜란드 수출품목 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YoY (22/23)	CAGR (19/23)
전체		98,977,341	102,096,315	116,614,913	117,905,558	125,256,095	100.0	6.2	6.1
1	조제식료품	3,147,896	3,348,389	3,771,197	3,639,452	3,913,748	3.1	7.5	5.6
2	치즈(기타)	3,134,610	3,247,146	3,373,522	3,656,185	3,741,700	3.0	2.3	4.5
3	감자	1,802,285	1,483,027	1,773,298	2,153,081	2,813,703	2.2	30.7	11.8
4	영유아 조제식료품	2,489,840	2,682,323	2,195,014	2,998,087	2,405,375	1.9	-19.8	-0.9
5	파종용 채소 종자	1,816,501	2,000,469	2,205,962	2,015,399	2,206,071	1.8	9.5	5.0
6	신선 냉장 쇠고기	1,747,385	1,533,626	1,905,005	2,100,212	2,181,879	1.7	3.9	5.7
7	맥주	2,015,905	2,111,279	2,166,034	2,000,336	2,165,989	1.7	8.3	1.8
8	신선 토마토	1,930,649	1,912,912	2,099,994	1,806,743	1,924,869	1.5	6.5	-0.1
9	무변성 에틸알코올	977,747	1,233,109	1,525,982	1,669,073	1,732,864	1.4	3.8	15.4
10	절단한 냉장 닭고기	1,381,442	1,329,060	1,538,272	1,712,365	1,684,803	1.3	-1.6	5.1

*주: HS CODE(2106.90, 0406.90, 2004.10, 1901.10, 1209.91, 0201.30, 2203.00, 2207.10, 0702.00, 0207.13)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2024.07.)

▌1.6 | 식품 수입현황

1.6.1 수입국

개요

2023년 네덜란드의 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약 822억 1,413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입액은 연평균 5.6% 증가했다.

對한국 수입

한국에서의 식품 수입 비중은 0.1%로, 수입 상위 59위에 위치한다.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23.7% 증가한 약 1억 1,494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입액은 연평균 26.4%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

독일에서의 식품 수입 비중은 19.4%로,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약 159억 3,957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입액은 연평균 8.3% 증가했다.

벨기에에서의 식품 수입 비중은 14.5%로,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약 119억 3,164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입액은 연평균 6.3% 증가했다.

이 밖에도, **프랑스(6.5%), 스페인(4.4%), 브라질(4.3%)** 등에서 식품을 수입한다.

<네덜란드 수입국 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YoY (22/23)	CAGR (19/23)
전체		65,997,187	68,807,148	78,187,137	82,442,998	82,214,128	100.0	-0.3	5.6
1	독일	11,593,833	12,170,735	14,378,040	15,372,454	15,939,565	19.4	3.7	8.3
2	벨기에	9,333,913	9,565,108	10,612,707	11,045,252	11,931,643	14.5	8.0	6.3
3	프랑스	4,408,185	4,486,938	5,308,404	5,768,451	5,313,500	6.5	-7.9	4.8
4	스페인	2,632,850	2,964,288	3,301,431	3,354,950	3,642,907	4.4	8.6	8.5
5	브라질	2,914,516	3,153,952	3,750,258	3,831,450	3,552,928	4.3	-7.3	5.1
6	폴란드	1,916,163	1,979,826	2,408,939	2,930,866	3,159,211	3.8	7.8	13.3
7	이탈리아	1,854,839	1,979,954	2,439,769	2,600,386	2,597,971	3.2	-0.1	8.8
8	미국	2,446,624	2,606,579	2,493,311	2,535,201	2,393,806	2.9	-5.6	-0.5
9	영국	2,419,581	2,492,916	2,028,498	2,247,135	2,070,013	2.5	-7.9	-3.8
10	중국	1,324,354	1,226,643	1,509,955	2,103,516	1,643,001	2.0	-21.9	5.5
				:					
59	한국	45,009	64,357	86,222	92,930	114,942	0.1	23.7	26.4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2024.07.)

1.6.2 수입품목

개요

2023년 수입액 기준 **동·식물성 유지, 코코아두, 조제식료품, 옥수수(기타), 대두(기타)** 등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수입품목

동·식물성 유지 수입 비중은 2.8%로,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2% 감소한 약 22억 9,999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입액은 연평균 22.6% 증가했다.

코코아두 수입 비중은 2.7%로,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41.8% 증가한 약 21억 8,47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입액은 연평균 1.1% 감소했다.

조제식료품 수입 비중은 2.6%로,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약 21억 716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입액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옥수수(기타) 수입 비중은 1.8%로,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약 15억 2,031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입액은 연평균 4.1% 증가했다.

대두(기타) 수입 비중은 1.7%로,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약 14억 1,386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입액은 연평균 2.0% 감소했다.

이 밖에도, **빵(기타)(1.7%), 포도주(2ℓ 이하)(1.6%), 팜유(조유)(1.5%)** 등을 수입했다.

<네덜란드 수입품목 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YoY (22/23)	CAGR (19/23)
전체		65,997,187	68,807,148	78,187,137	82,442,998	82,214,128	100.0	-0.3	5.6
1	동·식물성 유지	1,017,108	1,295,810	1,918,440	2,810,081	2,299,992	2.8	-18.2	22.6
2	코코아두	2,282,609	1,814,234	1,938,996	1,540,963	2,184,704	2.7	41.8	-1.1
3	조제식료품	1,552,659	1,780,066	2,088,081	1,897,588	2,107,158	2.6	11.0	7.9
4	옥수수(기타)	1,295,745	1,229,509	1,473,679	1,649,817	1,520,314	1.8	-7.8	4.1
5	대두(기타)	1,531,636	1,743,110	2,193,467	1,652,228	1,413,862	1.7	-14.4	-2.0
6	빵(기타)	963,196	977,495	1,169,330	1,222,543	1,405,502	1.7	15.0	9.9
7	포도주(2ℓ 이하)	1,122,682	1,262,869	1,427,473	1,335,332	1,353,431	1.6	1.4	4.8
8	팜유(조유)	1,429,153	1,506,656	1,727,353	1,713,528	1,254,568	1.5	-26.8	-3.2
9	무변성 에틸알코올	845,178	861,064	1,295,077	1,687,706	1,177,306	1.4	-30.2	8.6
10	신선·건조 아보카도	817,596	1,027,919	1,020,974	911,557	1,164,609	1.4	27.8	9.2

*주: HS CODE(1518.00, 1801.00, 2106.90, 1005.90, 1201.90, 1905.90, 2204.21, 1511.10, 2207.10, 0804.40)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2024.07.)

▌1.7 | 對네덜란드 한국산 수출현황

1.7.1 부문별 수출현황

개요

2023년 한국산 식품의 對네덜란드 수출액은 약 1억 8,935만 달러로 2019년 약 9,972만 달러에서 연평균 17.4% 증가했다.

농산물

농산물 수출 비중은 87.5%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약 1억 6,576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17.8%의 증가세를 보인다.

수산물

수산물 수출 비중은 7.3%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1% 감소한 약 1,385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8.3%의 증가세를 보인다.

임산물

임산물 수출 비중은 2.6%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약 491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31.5%의 증가세를 보인다.

축산물

축산물 수출 비중은 2.6%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2.5% 증가한 약 483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25.6%의 증가세를 보인다.

<한국산 對네덜란드 부문별 수출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YoY (22/23)	CAGR (19/23)
전체	99,724	116,378	151,970	174,771	189,348	100.0	8.3	17.4
농산물	86,064	94,428	123,605	149,707	165,759	87.5	10.7	17.8
수산물	10,076	9,264	19,643	18,741	13,846	7.3	-26.1	8.3
임산물	1,645	1,774	3,452	4,409	4,913	2.6	11.4	31.5
축산물	1,939	10,913	5,270	1,913	4,831	2.6	152.5	25.6

*출처: KATI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2024.07.)

1.7.2 수출품목

개요

2023년 한국의 對네덜란드 주요 수출 품목은 수출액 기준 **라면, 색이 첨가된 음료, 김치, 조미김, 쌀가루 조제식료품** 등으로 나타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에는 '조미김(108.9%↑)'과 '색이 첨가된 음료(97.5%↑)' 등이 있다.

주요 수출품목

라면 수출 비중은 32.0%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2.1% 증가한 약 6,067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71.8% 증가했다.

색이 첨가된 음료 수출 비중은 4.5%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1% 증가한 약 857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97.5% 증가했다.

김치 수출 비중은 3.9%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약 738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연평균 21.4% 증가했다.

조미김 수출 비중은 3.8%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1.2% 증가한 약 713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108.9% 증가했다.

쌀가루 조제식료품 수출 비중은 3.0%로,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6% 증가한 약 56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42.4% 증가했다.

<한국산 對네덜란드 수출품목 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YoY (22/23)	CAGR (19/23)
전체		99,724	116,378	151,970	174,771	189,348	100.0	8.3	17.4
1	라면	6,966	11,465	19,287	30,025	60,670	32.0	102.1	71.8
2	색이 첨가된 음료	563	4,629	9,175	6,250	8,566	4.5	37.1	97.5
3	김치	3,398	5,147	5,448	6,429	7,380	3.9	14.8	21.4
4	조미김	375	2,664	5,239	3,936	7,132	3.8	81.2	108.9
5	쌀가루 조제식료품	1,363	2,044	3,049	3,721	5,603	3.0	50.6	42.4
6	기타 무알코올 음료	4,152	4,357	4,241	4,050	5,229	2.8	29.1	5.9
7	동식물성 유지(기타)	1,597	10,027	4,980	1,750	4,521	2.4	158.4	29.7
8	큰느타리버섯	9,467	8,179	7,059	5,600	3,433	1.8	-38.7	-22.4
9	소스 조제품(기타)	876	1,404	2,048	2,423	3,242	1.7	33.8	38.7
10	베이커리 제품	1,476	1,606	2,069	2,133	2,795	1.5	31.0	17.3

*주: HS CODE(1902.30-1010, 2202.10-1000, 2005.99-1000, 2008.99-5010, 1901.90-9091, 2202.99-9000, 1518.00-9090, 0709.59-4010, 2103.90-9090, 1905.90-1090)

**출처: KATI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2024.07.)

2 식품 유통현황

▌2.1 | 오프라인 유통현황

2.1.1 네덜란드 오프라인 유통채널 규모

개요

2023년 네덜란드의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 규모는 2019년 469억 700만 유로에서 연평균 4.3% 성장한 554억 1,110만 유로로 집계되었다.

슈퍼마켓

2023년 슈퍼마켓의 규모는 2019년 290억 4,720만 유로에서 연평균 4.6% 성장한 347억 5,930만 유로로,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62.7%를 차지했다.

할인점

2023년 할인점의 규모는 2019년 64억 7,690만 유로에서 연평균 5.7% 성장한 80억 7,090만 유로로,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14.6%를 차지했다.

전문판매점

2023년 전문판매점의 규모는 2019년 36억 2,900만 유로에서 연평균 2.5% 성장한 40억 720만 유로로,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7.2%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 규모(2019~2023)>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YoY (22/23)	CAGR (19/23)
전체	46,907.0	51,575.7	51,429.3	53,699.6	55,411.1	100.0	3.2	4.3
슈퍼마켓	29,047.2	32,715.9	32,169.5	33,405.5	34,759.3	62.7	4.1	4.6
할인점	6,476.9	6,927.6	7,216.4	8,064.7	8,070.9	14.6	0.1	5.7
전문판매점	3,629.0	3,870.7	3,889.1	3,878.1	4,007.2	7.2	3.3	2.5
소규모 식료품점	2,675.2	2,802.9	2,778.0	2,803.5	2,840.5	5.1	1.3	1.5
하이퍼마켓	2,118.0	2,343.1	2,455.7	2,543.1	2,759.3	5.0	8.5	6.8
포코트리테일러	2,201.5	2,116.5	2,128.8	2,187.2	2,142.4	3.9	-2.0	-0.7
편의점	759.2	799.0	791.8	817.7	831.5	1.5	1.7	2.3

*주: 전문판매점-식품·주류·담배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 포코트리테일러-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출처: 「Retail in Netherlands(2024.03.)」(유로모니터)

2.1.2 오프라인 유통채널 매장 수

개요

2023년 네덜란드의 오프라인 유통채널 매장 수는 2019년 3만 1,337개에서 연평균 1.6% 감소한 2만 9,326개로 집계되었다.

전문판매점

2023년 전문판매점 매장 수는 2019년 1만 1,497개에서 연평균 1.9% 감소한 1만 641개로,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 매장 수의 36.3%를 차지했다.

소규모 식료품점

2023년 소규모 식료품점 매장 수는 2019년 1만 1,458개에서 연평균 3.1% 감소한 1만 91개로,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 매장 수의 34.4%를 차지했다.

슈퍼마켓

2023년 슈퍼마켓 매장 수는 2019년 4,724개에서 연평균 1.0% 성장하여 2023년 4,912개로,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 매장 수의 16.7%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 매장수(2019~2023)>

(단위: 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YoY (22/23)	CAGR (19/23)
전체	31,337	30,780	29,941	29,655	29,326	100.0	-1.1	-1.6
전문판매점	11,497	11,175	10,935	10,783	10,641	36.3	-1.3	-1.9
소규모 식료품점	11,458	11,220	10,615	10,338	10,091	34.4	-2.4	-3.1
슈퍼마켓	4,724	4,739	4,755	4,854	4,912	16.7	1.2	1.0
포코트리테일러	2,165	2,142	2,115	2,137	2,120	7.2	-0.8	-0.5
할인점	933	934	935	937	941	3.2	0.4	0.2
편의점	510	519	532	550	563	1.9	2.4	2.5
하이퍼마켓	50	51	54	56	58	0.2	3.6	3.8

*주: 전문판매점-식품·주류·담배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 포코트리테일러-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출처: 「Retail in Netherlands(2024.03.)」(유로모니터)

2.1.3 오프라인 유통채널 브랜드 점유율

① Albert Heijn

Koninklijke Ahold의 유통채널 브랜드로, 전체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5.1%로 집계되었다.

② Jumbo

Jumbo Supermarkten BV의 유통채널 브랜드로, 전체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8.5%로 집계되었다.

③ Lidl

Schwarz Beteiligungs GmbH의 유통채널 브랜드로, 전체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8.9%로 집계되었다.

④ Plus

PLUS Retail BV의 유통채널 브랜드로, 전체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7%로 집계되었다.

⑤ Aldi

Aldi Group의 유통채널 브랜드로, 전체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6%로 집계되었다.

<네덜란드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 브랜드 점유율 순위(2020~2023)>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YoY (22/23)	CAGR (20/23)
1	Albert Heijn	23.8	24.2	24.1	25.1	4.1	1.8
2	Jumbo	17.6	18.7	18.2	18.5	1.6	1.7
3	Lidl	8.2	8.5	9.1	8.9	-2.2	2.8
4	Plus	-	-	6.0	5.7	-5.0	N/A
5	Aldi	5.3	5.5	5.9	5.6	-5.1	1.9
6	AH XL	3.7	3.8	3.8	4.0	5.3	2.6
7	Coop	-	-	1.8	1.7	-5.6	N/A
8	Primera	1.6	1.6	1.6	1.5	-6.3	-2.1
9	Hoogvliet	1.5	1.6	1.5	1.4	-6.7	-2.3
10	Dirk	1.3	1.3	1.4	1.3	-7.1	0.0

*출처:「Retail in Netherlands(2024.03.)」(유로모니터)

2.1.4 주요 오프라인 유통채널

	브랜드명	Albert Heijn(AH)	창립연도	1887년
	점유율	25.1%	브랜드 국적	네덜란드
	웹사이트	ah.nl	매장 수	922개
	- Koninklijke Ahold Delhaize NV 산하 슈퍼마켓 브랜드 - 관광객의 이용 비중이 높으며 관광객들을 위한 네덜란드 특산 식료품 매대를 제공 - 매장이 관광지에 있는지 주거지에 있는지에 따라 상품 구성과 가격이 조금씩 변동 - 네덜란드 식료품 유통 브랜드 중 가장 다양한 종류의 한국 식품을 유통 중임 - 한국 스타일의 비빔밥을 조리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와 조리법이 포함된 밀키트 판매			
매장 사진				
	외부 전경	내부 매대 전경		

*출처: 「Retail in The Netherlands」(유로모니터), 네덜란드 AH 홈페이지(ah.nl), 네덜란드 AH 소셜미디어 계정

	브랜드명	Jumbo	창립연도	1921
	점유율	18.5%	브랜드 국적	네덜란드
	웹사이트	jumbo.com	매장 수	616개
	- Jumbo Supermarkten BV 산하 슈퍼마켓 브랜드 -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식료품 유통 프랜차이즈 - 불닭볶음면(삼양식품) 제품을 따로 분류해놓은 특별 매대를 제공 - 취향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냉동 해산물 바, 마카롱 바를 제공 - Jumbo Innovation Lab을 통해 식품 공급자들과 협력하여 케일 버거, 호박볼, 한끼 오트밀 등의 상품을 R&D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함			
매장 사진				
	외부 전경	내부 매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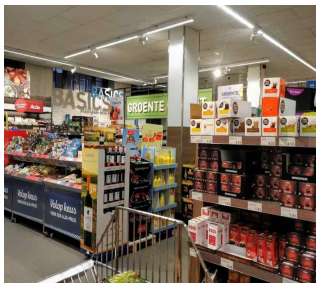
*출처: 「Retail in The Netherlands」(유로모니터), Jumbo 홈페이지(jumbo.com), Jumbo 소셜미디어 계정

	브랜드명	Lidl	창립연도	1973년
	점유율	8.9%	브랜드 국적	독일
	웹사이트	Lidl.nl	매장 수	445개
	- Schwarz Beteiligungs Gmbh 산하 하이퍼마켓·슈퍼마켓 브랜드 - 유기농 농산물, 육류와 다양한 식료품을 저렴하게 취급함 - Lidl plus 앱을 통한 할인 행사 제공 및 월/목요일마다 할인 품목을 공고함			
매장 사진				
	외부 전경	내부 매대 전경		

*출처: 「Retail in The Netherlands」(유로모니터), 네덜란드 Lidl 홈페이지(Lidl.nl), 네덜란드 Lidl 소셜미디어 계정

	브랜드명	Plus	창립연도	1972년
	점유율	5.7%	브랜드 국적	독일
	웹사이트	plus.nl	매장 수	339개
	- PLUS Retail BV 산하 슈퍼마켓 브랜드 - 다른 슈퍼마켓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며, 점포의 크기가 작은 편임 - 협동조합 슈퍼마켓으로, 점주가 독립적으로 각각의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 최근 일부 채소 품목에 대해 유기농 제품을 도입 중임			
매장 사진				
	외부 전경	내부 매대 전경		

*출처: 「Retail in The Netherlands」(유로모니터), 네덜란드 Plus 홈페이지(plus.nl), Plus 소셜미디어 계정

<table>
<tr><td rowspan="4"></td><td>브랜드명</td><td>Aldi</td><td>창립연도</td><td>1961년</td></tr>
<tr><td>점유율</td><td>5.6%</td><td>브랜드 국적</td><td>독일</td></tr>
<tr><td>웹사이트</td><td>aldi.nl</td><td>매장 수</td><td>485개</td></tr>
<tr><td colspan="4">- Aldi group 산하 슈퍼마켓 브랜드
-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식료품을 판매하여 인기가 높음
- 2023년 구입 식료품에 대해 셀프 계산대를 도입함
- 자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Shop&Go를 통해 물건을 고르고 모바일에서 계산</td></tr>
<tr><td>매장 사진</td><td colspan="4">


외부 전경 내부 매대 전경</td></tr>
</table>

*출처: 「Retail in The Netherlands」(유로모니터), 네덜란드 Aldi 홈페이지(aldi.nl), 네덜란드 Aldi 소셜미디어 계정

▌2.2 | 온라인 유통현황

2.2.1 온라인 유통채널 규모

개요

2023년 네덜란드의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 규모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29억 1,220만 유로로, 2019년 이후 연평균 23.1%의 증가세를 보인다.

<네덜란드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 규모(2019~2023)>

(단위: 백만 유로, %)

2019	2020	2021	2022	2023	YoY (22/23)	CAGR (19/23)
1,268.0	1,963.6	2,628.7	2,721.4	2,912.2	7.0	23.1

*출처: 「Retail in Netherlands(2024.03.)」(유로모니터)

2.2.2 온라인 유통채널 브랜드 점유율

① Bol.com Marketplace

Koninklijke Ahold Delhaize NV의 유통채널 브랜드로, 전체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4%로 집계되었다.

② Bol.com

Koninklijke Ahold Delhaize NV의 유통채널 브랜드로, 전체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8.8%로 집계되었다.

③ AH.nl

Koninklijke Ahold Delhaize NV의 유통채널 브랜드로, 전체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9%로 집계되었다.

④ AliExpress Marketplace

Alibaba Group Holding Ltd의 유통채널 브랜드로, 전체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6%로 집계되었다.

⑤ Jumbo

Jumbo Supermarkten BV의 유통채널 브랜드로, 전체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6%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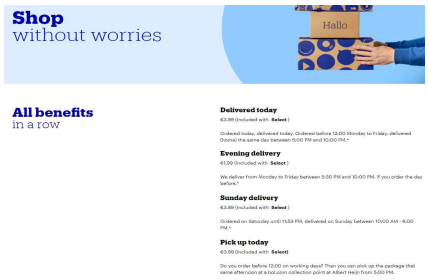
<네덜란드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 브랜드 점유율 순위(2020~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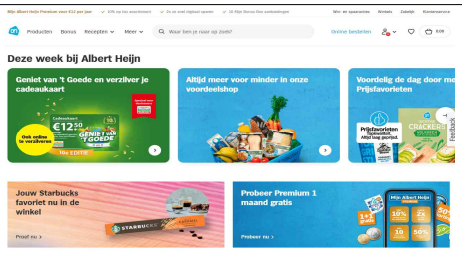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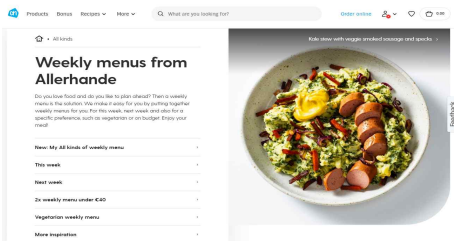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YoY (22/23)	CAGR (20/23)
1	Bol.com Marketplace	8.8	10.1	10.2	9.4	-7.8	2.2
2	Bol.com	7.3	8.4	8.3	8.8	6.0	6.4
3	AH.nl	4.9	5.9	5.8	5.9	1.7	6.4
4	AliExpress Marketplace	2.1	2.6	2.4	2.6	8.3	7.4
5	Jumbo	2.3	2.6	2.5	2.6	4.0	4.2
6	Picnic	1.9	2.1	2.1	2	-4.8	1.7
7	Amazon	1.1	1.4	1.6	1.7	6.2	15.6
8	eBay Marketplace	2.2	1.9	1.7	1.6	-5.9	-10.1
9	Amazon Marketplace	1.2	1.3	1.5	1.5	0.0	7.7
10	HelloFresh	0.9	1.1	1.3	1.4	7.7	15.9

*출처: 「Retail in Netherlands(2024.03.)」(유로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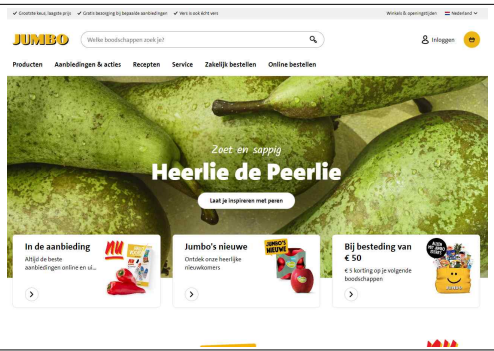
.2.3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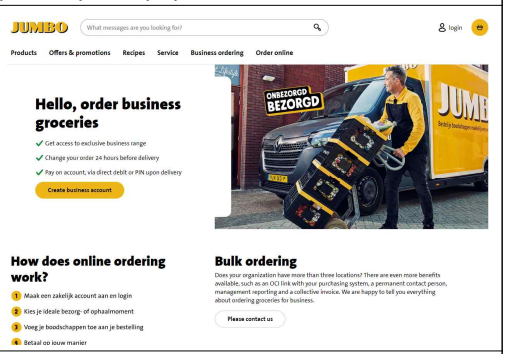
<table>
<tr><td rowspan="3">bol.com</td><td>사이트명</td><td>bol</td><td>운영업체</td><td>Koninklijke Ahold Delhaize NV</td></tr>
<tr><td>점유율</td><td>9.4%</td><td>웹사이트</td><td>bol.com/nl</td></tr>
<tr><td colspan="4">- 벨기에, 네덜란드 두 곳에서 이용 가능한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
- 신선 식품보다는 가공식품(커피, 식사대용 쉐이크 분말, 수프 통조림 및 과자)를 주로 판매
- 당일배송, 저녁배송, 일요일 배송, 당일수령 등 다양한 배송 및 픽업 옵션 제공</td></tr>
<tr><td>사진</td><td colspan="2">
</td><td colspan="2"> 
</td></tr>
<tr><td></td><td colspan="2">사이트 화면</td><td colspan="2">다양한 배송 옵션</td></tr>
</table>

*출처: 「Retail in The Netherlands(2024.03.)」(유로모니터), 네덜란드 Bol.com 홈페이지(bol.com/nl), 네덜란드 Bol.com 소셜미디어 계정

<table>
<tr><td rowspan="3"></td><td>사이트명</td><td>ah</td><td>운영업체</td><td>Koninklijke Ahold Delhaize NV</td></tr>
<tr><td>점유율</td><td>5.9%</td><td>웹사이트</td><td>ah.nl</td></tr>
<tr><td colspan="4">- 벨기에, 네덜란드 두 곳에서 이용 가능한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
- 오프라인 식료품 유통업체 1위인 AH의 온라인 쇼핑몰
- Albert Heijn Premium 멤버십을 통해 유기농식품 및 식물기반 AH Terra 품목에 대해 상시 10% 할인을 제공
- 주간 메뉴를 추천하며 이를 조리 후 판매하기도 함</td></tr>
<tr><td>사진</td><td colspan="2"> 
</td><td colspan="2"> 
</td></tr>
<tr><td></td><td colspan="2">사이트 화면</td><td colspan="2">이번 주의 메뉴 및 재료 배송</td></tr>
</table>

*출처:「Retail in The Netherlands(2024.03.)」(유로모니터), 네덜란드 AH 홈페이지(ah.nl), 네덜란드 AH 소셜미디어 계정

<table>
<tr><td rowspan="2"></td><td>사이트명</td><td>Jumbo</td><td>운영업체</td><td>Jumbo Supermarkten BV</td></tr>
<tr><td>점유율</td><td>2.6%</td><td>웹사이트</td><td>jumbo.com</td></tr>
<tr><td colspan="4">- 벨기에, 네덜란드 두 곳에서 이용 가능한 B2C,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 일일/주간 메뉴 추천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편 레시피와 연관된 식재료를 할인 판매함
- 앱을 통해 배송/픽업 시간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식재료를 배송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픽업 가능
- 식료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원하는 기업들과도 거래를 함</td></tr>
<tr><td>사진</td><td colspan="2"> 

사이트 화면</td><td colspan="2"> 

식료품 대량 배송 문의</td></tr>
</table>

*출처: 「Retail in The Netherlands(2024.03.)」(유로모니터), Jumbo 홈페이지(jumbo.com), 네덜란드 Jumbo 소셜미디어 계정

2.3 | 유통채널 전망

2.3.1 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망

개요

네덜란드의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 규모는 2023년 554억 1,110만 유로에서 연평균 1.2% 성장하여 2027년 581억 1,08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마켓

슈퍼마켓의 규모는 2023년 347억 5,930만 유로에서 연평균 0.9% 성장하여 2027년 360억 3,81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점

할인점의 규모는 2023년 80억 7,090만 유로에서 연평균 2.5% 성장하여 2027년 89억 1,79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퍼마켓

하이퍼마켓의 규모는 2023년 27억 5,930만 유로에서 연평균 8.5% 성장하여 2027년 38억 2,78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 전망(2023~2027)>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중 (27)	YoY (26/27)	CAGR (23/27)
전체	55,411.1	55,935.8	56,652.3	57,304.4	58,110.8	100.0	1.4	1.2
슈퍼마켓	34,759.3	35,131.2	35,440.2	35,746.0	36,038.1	62.0	0.8	0.9
할인점	8,070.9	8,124.9	8,355.5	8,631.6	8,917.9	15.3	3.3	2.5
하이퍼마켓	2,759.3	3,021.0	3,323.4	3,502.2	3,827.8	6.6	9.3	8.5
전문판매점	4,007.2	3,943.5	3,876.6	3,811.5	3,749.4	6.5	-1.6	-1.6
소규모 식료품점	2,840.5	2,754.5	2,669.3	2,591.5	2,516.9	4.3	-2.9	-3.0
포코트리테일러	2,142.4	2,137.1	2,161.4	2,187.9	2,216.5	3.8	1.3	0.9
편의점	831.5	823.6	825.9	833.7	844.2	1.5	1.3	0.4

*주: 전문판매점-식품·주류·담배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 포코트리테일러-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출처: 「Retail in Netherlands(2024.03.)」(유로모니터)

2.3.2 온라인 유통채널 전망

개요

네덜란드의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 규모는 202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6.2% 성장하여, 2027년 36억 9,93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 전망(2023~2027)>

(단위: 백만 유로, %)

2023	2024	2025	2026	2027	YoY (26/27)	CAGR (23/27)
2,912.2	3,084.4	3,282.3	3,517.8	3,699.3	5.2	6.2

*출처: 「Retail in Netherlands(2024.03.)」(유로모니터)

3 수출품목 및 소비트렌드

3.1 | 수출품목

3.1.1 수출품목 선정기준

<수출품목 선정 지표 기준>

1. 직전년도 한국산 식품 수출규모
2. 직전년도 한국산 식품 수출성장률
3. 현지 소비 이슈에 부합하는 품목
4. 현지 시장에서 수요 증가 등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품목

3.1.2 한국산 수출품목

① 버섯류(수출상위 품목)

네덜란드에서 버섯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환경 친화적인 식물성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내는 버섯은 채식주의자는 물론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목이버섯 등 아시아 버섯에 대한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에 2023년 한국산 버섯류의 네덜란드 수출액은 343만 3,000달러를 기록하며 주요 수출 품목 8위에 올랐다. 한국의 우수한 재배 기술로 생산된 버섯은 뛰어난 맛과 풍부한 영양을 갖추고 있어 현지에서 프리미엄 버섯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국적인 아시아 버섯의 수요가 증가하자 현지에서도 재배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재배된 버섯은 GAP인증, 유기농인증, 공정생산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취득해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현지 소비자를 고려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간편한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 슬라이스 버섯 등 손질된 버섯의 소비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지 유통 기업 Albert Heijn에서는 슬라이스된 표고버섯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시아 버섯을 함께 파는 '아시아 모둠 버섯'을 출시했다.

표고버섯 슬라이스	아시아 모둠 버섯	새송이버섯

*출처: Albert Heijn

▶출처
2022.07.18. 기타보고서, 2022 지구촌리포트 123호(2022.0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The Dutch mushroom industry is the second largest in Europe, Mushroomforum
유럽에서 건조 버섯이 뜬다, RealFoods
[최석영의 버섯이야기(2)]다양성과 새로움 그리고 자긍심, 경상일보
천혜 | '맛·영양' 다 잡은 새송이버섯, 유럽서 승승장구, 한국농어민신문

② 고추장(수출상위 품목)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진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비빔밥, 떡복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음식은 떡볶이로 현지 매체 Modmod에서 고추장을 사용해 만드는 떡볶이 레시피와 고추장을 구매할 수 있는 현지 슈퍼마켓 프랜차이즈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 한류 열풍으로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시아 식료품점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한국 식재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로의 한국산 고추장 수출액은 2023년 약 265만 5,300달러로 전년 대비 87.7% 증가해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현지에 판매되는 고추장은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된 고추장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시아 식료품점, 슈퍼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네덜란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현지 소비자는 중국이나 베트남 소스보다 한국 고추장의 맛을 선호해 자주 구매한다고 밝혔으며 라면 등 다른 한국 식품을 경험한 소비자가 고추장까지 소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한국산 고추장	비닐에 포장된 한국산 고추장

*출처: Amazon Netherlands, Vietnam Corner, Amazing Oriental

▶출처
2024.03.14. 해외시장동향, [유럽] '세계의 맛' 트렌드가 온다... 퓨전 및 세계 음식 인기 바람과 함께 한국식품은 현재 순항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01.05. 해외시장동향, [유럽] 유럽은 지금 한국의 맛 앓이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How Netherlands has become a top K-food destination, Asian News Network
Zuid-Koreaanse street food-hype 'Tteokbokki' vliegt over naar Nederland, modmod
[르포] "K푸드 먹다보니 고추장·쌈장까지" 네덜란드 입맛 사로잡은 'K소스', 뉴시스

③ 라면(수출상위 품목)

네덜란드에서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한 식품인 라면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라면 시장규모는 2023년 890만 유로로 2019년 이후 연평균 9.5% 성장했다.

네덜란드에서 한국 음식의 인지도가 높아지며 한국 라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라면의 對네덜란드 수출액은 2023년 약 6,067만 달러로 2022년 대비 102.1% 증가했으며, 2019년 이후 연평균 71.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매운맛 요리에 익숙하고 따뜻한 국물 요리를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 라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저염, 통곡물 면 등 건강을 고려한 라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 라면 브랜드 The Noodle Poodle은 데리야키 맛 비건 라면을 출시했으며, 네덜란드 시장에 진출한 태국 라면 브랜드 Yumyum은 채소 라면을 출시했다.

<table>
<tr><td>
</td><td>
</td></tr>
<tr><td colspan="2">한국산 라면</td><td>The Noodle Poodle의 비건 라면</td></tr>
</table>

*출처: Amazon Netherlands, Jumbo

▶출처

[KH Explains] How Netherlands has become a top K-food destination, The Korea Herald
Netherlands Instant Noodles Market 2024, Strategy Helix

④ 아이스크림(수출상위 품목)

네덜란드에서 아이스크림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디저트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23년 네덜란드 아이스크림 시장규모는 6억 3,020만 유로로 2019년 이후 연평균 7.7% 성장했다.

네덜란드 소매 유통채널 알버트하인(Albert Heijn)에 한국산 아이스크림이 입점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빙그레의 식물성 메로나는 탈지유 대신 오트밀크를 사용해 식물성 식품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부합했다. 이에 2023년 한국산 아이스크림의 네덜란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698.9% 증가한 28만 5,700달러를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네덜란드에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 유제품을 비롯한 식물성 식품의 인기가 증가했다.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천연 재료를 사용한 식물성 아이스크림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현지 유통기업 Albert Heijn은 초콜릿 맛 식물성 아이스크림을 출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2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독특한 모양의 아이스크림 등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양한 아이스크림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맞춰 네덜란드 아이스크림 브랜드 Wochi Mochi는 찹쌀떡 아이스크림이라는 이색적인 아이스크림을 출시했다.

식물성 아이스크림	찹쌀떡 아이스크림	한국산 아이스크림

*출처: Albert Heijn, Distrifood, Amazing Oriental

▶출처

Binggrae's Plant-Based Melona Ice Cream Bars Achieve Triple Sales Growth in Europe, Vegconomist
Meat substitute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in Dutch food service industry, I am Expat
Startup van de maand: IJsbaart, Retail Trends
Bieze Food Solutions brengt met Wochi Mochi ijstrend naar Nederlandse markt, Distrifood
Klassiekers: met deze ijsjes groeiden hele generaties op, pzc
Ice cream in the Netherlands, Euromonitor

⑤ 주류(수출상위 품목)

칵테일, 증류주의 인기가 높아지며 네덜란드 주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주류 시장규모는 2023년 171억 달러로 2019년 이후 연평균 2.3% 성장했다.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주, 맥주, 막걸리 등 다양한 한국 주류가 네덜란드 시장에 진출했다. 2023년 한국산 주류의 네덜란드 수출액은 65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9년 이후 연평균 33.7%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접한 주류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주류의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주류의 양보다는 맛과 품질을 중시하고 있다. 높은 도수의 주류보다는 다양한 재료와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진 고급 칵테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SNS에 아름다운 칵테일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저알코올 RTD(Ready-to-Drink) 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 시장에 진출한 이탈리아 주류 브랜드 Aperol은 RTD음료 Spritz를 출시했으며, 네덜란드 주류 브랜드 STËLZ는 과일맛 RTD 음료 Hard Seltzer를 출시했다.

한국산 막걸리	한국산 소주	STELZ의 Hard Seltzer

*출처: Amazing Oriental, Soju, Tokogembira

▶출처

[KH Explains] How Netherlands has become a top K-food destination, The Korean Herald
Alcoholic Drinks in the Netherlands, Euromonitor
Alcoholic Drinks, Statista

▌3.2 | 소비트렌드

① 네덜란드, 한식 인기 증가

네덜란드에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네덜란드로 수출된 한국 식품의 규모는 약 1억 7,477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김치, 라면, 고추장, 음료, 과자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현지 매체 Zin in Koffie에 따르면 인터넷상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한국 요리법(Koreaanse recepten)' 검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한식은 Tiktok을 비롯한 SNS를 통해 네덜란드 소비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다. 불닭볶음면(삼양) 챌린지, 한국 식당(Chun Café)을 소개하는 영상 등 다양한 한식 관련 콘텐츠가 Tiktok에서 인기를 얻었다. 또한 최근 네덜란드 SNS에서 신라면(농심)에 마요네즈, 치즈 등 다양한 재료를 추가해서 먹는 요리법이 유행하고 있다.

건강한 한국 식품 또한 주목받고 있다. 건강한 발효음식인 김치 또한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판매량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식품 브랜드 Kesbeke에서 김치를 제조해 판매할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보인다. 또한 간편하고 맛있는 한국산 비건 만두 및 채소 만두의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esbeke 김치	한국산 비건 만두

*출처: Jumbo

▶출처
3 culinaire trends die we in 2024 gaan zien, Zin in Koffie
'K-라면' 달라진 수출국 순위…네덜란드 신시장 열린다 [세모금], 헤럴드경제
유럽, 한식에 기회의 땅…10년간 수출액 세 자릿수 증가, 식품음료신문
CJ Food's bibigo nieuwe standaard retailmarkt, Distrifood
Smijt een ei bij je instant noedels en meer ramen-hacks, nrc

② 네덜란드,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확대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식품을 소비하고 있다. 특히, 육류 섭취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체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체육 시장은 2023년 3억 2,250만 달러 규모로, 2019년 이후 연평균 20% 성장했다.

네덜란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네덜란드 국민의 식사 중 무려 4분의 1이 식물성 식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완전 채식주의자 비율은 0.5%로 낮은 편이나, 상황에 따라 육류 위주의 식단과 채식 위주의 식단을 모두 섭취하는 유연한 채식주의자인 플렉시테리언(Flexiterian) 비율이 무려 43%에 달한다.

식물성 대체식품의 수요가 증가하자 현지 외식 기업 맥도날드 네덜란드에서는 햄버거, 너깃, 샐러드 등 총 대체육을 사용한 4종의 메뉴를 출시했다. 또한 네덜란드 소매 유통채널 알버트하인(Albert Heijn)에서는 식물성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 AH Terra를 설립해 현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알버트 하인 AH Terra의 제품

맥도날드 네덜란드의 대체육 사용 메뉴

▶출처
One in four main meals at Dutch dinner tables is vegetarian, Dutch News
Why are the Dutch eating so many meat substitutes?, I amsterdam
McDonald's Netherlands Lists Its New Meatless Burgers, Nuggets & Salad Before Beef on the Menu, Green Queen
Albert Heijn Launches AH Terra: The Largest Selection of Plant-Based Options in the Netherlands, Vegconomist
Meat Substitutes, Statista

③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감소

네덜란드에서 하루 평균 1,900만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가 버려지고 있어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KPMG의 2023년 7월 보고서 'Me, my life, my wallet'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비자의 80%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자신의 소비 행동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6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식물성 스프레드 기업 Upfield Holdings는 2024년 비플라스틱 코팅 종이 용기를 도입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80% 감축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포장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이 2024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유럽에서 신선 채소 및 과일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네덜란드 소비자들 또한 슈퍼마켓의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 대형마트 윰보(Jumbo)는 오이, 리크, 파프리카 등 신선 채소를 포장 없이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식품의 플라스틱 포장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table>
<tr><td> </td><td>
</td></tr>
<tr><td>Jumbo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되는 채소</td><td>Upfield Holdings의 종이 용기</td></tr>
</table>

▶출처

Jumbo removes plastic from Dutch fresh produce, Eurofruit
Nederland neemt afscheid van wegwerpbekers en –bakjes, Fair Resource Foundation
EU to ban plastic packaging for fruit and veg, Eurofruit
2024 Dutch Food Safety and Packaging Laws in The Netherlands, Atrium
Regels over wegwerpplastic, Rijksoverheid
Bedrijfsleven heeft blinde vlek: 85% burgers is plasticmoe, Plastic Soup
De Nederlandse consument wordt steeds duurzamer: zes prominente klantsegmenten, Emerce
Plant-based spread maker tries move into paper-based tubs, Financial Times

④ 식료품 물가 인상으로 소비 형태 변화

유럽 현지 매체 European Supermarket Magazine(ESM)에 따르면 2023년 7월 네덜란드 식료품 가격은 최대 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식료품 고물가는 최소 2025년 7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물가 인상으로 인해 비교적 식료품 가격이 저렴한 독일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네덜란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편한 소포장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비교적 낮은 단가의 대형 포장 제품을 구매해 냉동하는 등 편리함보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빵을 직접 굽거나 채소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는 등 자급자족을 통해 지출을 절약하는 소비자도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합리적인 품질과 가격의 자체브랜드(PB) 제품이 식료품 고물가 속에서 네덜란드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유럽 현지 매체 ESM에 따르면 2023년 네덜란드 슈퍼마켓의 총 매출액 중 30%가 자체브랜드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소매 유통채널 알버트하인(Albert Heijn)은 판매 제품의 약 60%가 자체브랜드 제품이며 아몬드유, 주스, 쌀과자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또 다른 유통 체인 윰보(Jumbo)에서도 치즈, 빵, 음료 등 다양한 자체 브랜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윰보의 자체 브랜드 치즈 제품	알버트 하인의 자체 브랜드 상품

▶출처

Straks niet meer de grens over voor goedkopere producten? Politiek komt met nieuw plan, Hart Van Nederland

Private Label Accounts For 30% Of Dutch Supermarket Sales, ESM

Are Dutch eating patterns altered by increasing supermarket prices?, Future of Food Institute

Boodschappen doen in Duitsland neemt vlucht, maar Duitsers weten Overijssel ook goed te vinden, Oost

Food Prices In The Netherlands To Remain High, Rabobank Says, ESM

Albert Heijn Launches "Better in own brand. And you notice that" Campaign, Velocity Institute

⑤ 에인트호번시의 푸드테크 레스토랑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시에서 레스토랑 BUNKR가 2023년 문을 열었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인공지능(AI)기술, 3D 식품 등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을 도입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레스토랑의 운영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BUNKR는 인공지능이 주문부터 자리 안내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 혁신적인 레스토랑이다.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체크인하면 지정된 테이블이 조명으로 밝혀져 편리하게 자리에 안내받을 수 있다. 테이블에서는 인공지능 Mensa와의 대화를 통해 개인 맞춤 메뉴를 추천받거나, 알레르기 정보를 공유해 적합한 메뉴를 알아볼 수 있다. 특히 모든 메뉴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BUNKR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제작한다. BUNKR의 셰프는 컴퓨터로 디자인된 모양대로 퓌레를 '인쇄'하고 이를 실제 음식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식전빵과 함께 제공되는 버터도 3D 프린터를 사용해 독특한 나무 모양으로 제조하고 있다.

BUNKR 레스토랑 내부	BUNKR의 3D 음식 프린터

▶출처

At BUNKR restaurant, Artificial Intelligence suggests what you eat, EindHoven News

AI-powered culinary experience in the "new Bunker", Cursor

4 수출절차

4.1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복합식품 생산시설 등록	· 한국산 동물 유래 재료(수산물)가 사용된 복합식품 수출 시, 해당 재료의 생산·가공시설 등록 필요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생산·가공시설 등록 필요	국내 수출업체
▼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네덜란드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수출신고서 ②상업송장 ③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		
EORI 번호 발급	· 유럽연합에서 수입통관 진행 시 EORI 번호(통관고유번호) 발급 필수 · 유럽연합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네덜란드 수입업체
적하목록 사전제출	·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 · 제출정보: ①화물에 대한 정보 ②화물 운송인 및 송하인 정보 ③운송 및 운항 정보	네덜란드 운송·수입 업체
▼		
수입신고	· 물품 도착 30일 전~도착 후 90일 이내 수입신고 완료 필요 · SAD 양식의 수입신고서와 제반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①수입신고서 ②상업송장 ③포장명세서 ④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⑤위생증명서 등 검사증명서(필요 시) ⑥관세가격신고서	네덜란드 수입업체
▼		
수입검사	· 수입식품에 대해 ①서류검사 ②식별검사 ③물리적검사 시행 - ①서류검사: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서류의 진위여부 검사 - ②식별검사: 제출서류의 세부사항과 실제 수입 물품을 교차 대조, 화물검사, 컨테이너 봉인확인, 상품 포장 확인 등 실시 - ③물리적검사: 포장을 개봉하고 제품을 검사하여 신고된 정보와 일치하는 제품인지를 검사	네덜란드 수입업체
▼		
관세 납부 및 반출	·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네덜란드 수입업체

4.2 | 통관 및 검역제도

①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 전 준비사항

<table>
<tr><td>복합식품 수입 규정</td><td>
● 유럽연합으로 복합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은 복합식품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필요
· 복합식품(Composite)은 동물유래 재료를 포함한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식품을 뜻함
· '동물유래 재료'는 육류,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유제품, 달걀, 꿀, 곤충을 일컬으며 '동물유래 가공식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동물유래 가공식품의 정의 및 예시>
①육류, 우유, 계란을 포함한 알류, 꿀, 수산물 등의 동물유래 재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공식품(즉석 사골국물, 치즈, 난백분, 액젓 등)
②식물성 재료가 사용되었으나 동물유래 재료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 경우(올리브유에 절인 통조림 참치, 한약재가 들어간 레토르트 삼계탕)
③젤라틴, 콜라겐, 카제인 등 고도로 정제되었으나 원재료가 동물로부터 유래한 재료

· 모든 식품에 사용된 동물유래 재료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며, 해당 식품의 보관 조건과 육류 함유 여부에 따라 규정 적용 조건을 달리함

<한국산 복합식품의 유럽 수출조건>
①육류를 함유한 한국산 식품은 원산지나 함유량에 상관없이 EU 수출이 불가함
②현재 한국산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곤충만이 유럽연합으로 수출 가능
③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식품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승인국의 승인 시설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야 함

· 젓갈(김치), 유제품(과자류, 음료류) 및 분말(라면스프) 등은 대표적인 복합식품으로, 유럽연합 역내로 한국산 동물유래 재료가 사용된 복합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료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이 요구됨
· (수산물) 한국산 수산물은 2024년 9월 기준 유럽연합 역내로 수출할 수 있어, 한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복합식품 수출업체는 제품에 사용된 한국산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야 함
</td></tr>
<tr><td>품목별 수입요건 파악</td><td>
● 수출 품목에 대한 유럽연합의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td></tr>
<tr><td>원산지증명서 발급</td><td>
● 네덜란드 수출 시 한-EU FTA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td></tr>
</table>

	· 자율발급 대상으로,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음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완제품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서류 심사 후 수리 ②현품 검사 후 수리 ③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수출신고필증 ②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출검역

● **네덜란드로 규제 농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네덜란드 수입업체의 요구가 있거나, △감귤 △사과 △배 △핵과류 △고추 △가지 등 규제 농식품으로 지정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①수출식물검사신청서 ②검사대상식물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수출검역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수출 검사신청서 ②선적관련 서류 ③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 적합 여부를 검사함

· 수출식물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축산물 검역의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네덜란드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네덜란드 수입제도

개요	● **네덜란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유럽연합의 지침, 규정 및 의무를 준수함** · 유럽연합은 관세동맹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공통된 세율이 적용됨

▶네덜란드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EORI 번호 발급	● **유럽연합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수출입업자, 운송업체는 통관고유번호(EORI 번호) 발급 필수** · EORI 번호는 유럽연합 공동 세관등록번호로,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는 EORI 번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유럽연합 회원국 세관 당국에 등록된 EORI 번호는 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입통관 진행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서 다시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 EORI 번호는 유럽연합 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EORI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한 후 수입통관·검역 절차를 진행해야 함 →유럽연합 위원회 사이트 URL : ec.europa.eu
적하목록 사전제출	● **운송업체는 수입국 도착 전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 · 화물에 대한 정보(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코드, 컨테이너 번호, 위험품목 코드 등), 화물 운송인 및 송하인, 수하인의 정보,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를 유럽연합 도착항의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함 <유럽연합 운송수단별 적하목록 제출기한>

· 컨테이너 해상운송	선적 24시간 전
· 벌크 해상운송	도착 2시간 전
· 4시간 미만 항공운송	실제 이륙 시간까지
· 4시간 이상 항공운송	유럽연합 관세 영역의 첫 공항 도착 최소 4시간 전
· 철도 운송	도착 1시간 전

수입신고	● **네덜란드 수입업체는 물품 도착 30일 전부터 세관에 도착 후 90일 이내에 수입신고 완료 필요** · 수입신고서 제출 시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양식을 사용해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유럽연합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수입신고서 ②상업 송장 ③포장명세서 ④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⑤위생증명서 등 검사증명서(필요 시) ⑥관세가격신고서

<table>
<tr><td>수입검사</td><td>
● 모든 수입식품은 무작위로 세관의 수입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규정 (EU) 2019/1793에 고시된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사 비중이 증가하거나 의무적으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음
· 수입검사 시 ①서류검사(Documentary check) ②제품검사(Identity check) ③물리적검사(Physical check)가 진행될 수 있음

<유럽연합 식품 수입검사 종류>
<table>
<tr><td>· 서류검사</td><td>-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사함
-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실시함</td></tr>
<tr><td>· 식별검사</td><td>- 제출서류의 세부사항과 실제 수입물품을 교차 대조하는 검사
- 화물검사, 컨테이너 봉인확인, 상품 포장 확인 등을 통해 상품이 서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함</td></tr>
<tr><td>· 물리적 검사</td><td>- 포장을 개봉하고 제품을 검사하여 신고된 정보와 일치하는 제품인지를 검사
- 검사관을 통한 관능평가 및 샘플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td></tr>
</table>
</td></tr>
<tr><td>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td><td>
● 네덜란드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 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수입검사 통과 시 관세 납부를 납부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관세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하며, 선하증권 원본 및 관세 영수증 발행 후 반출 가능함
· 유럽 국가 간 관세 철폐로 유럽 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td></tr>
</table>

4.3 | 수출가능·불가능 품목

4.3.1 수출가능품목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및 현미), 맥류, 수수, 두류(콩, 팥, 녹두 등) - 생과실 : 감, 포도, 참다래, 밤, 딸기, 블루베리 - 채소류 : 무, 배추, 양배추, 청경채, 당근, 양파, 마늘, 파, 호박, 오이, 참외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등 - 재식용 식물(조건부 수출가능) : 식물에 부착된 재배매체, 분재류(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 검역요령」 참고), 다육식물묘(EU 집행위규 2019/2072 부속서7의 다음 규정 준수·검역증 부기),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및 고추(Capsicum annuum)의 종자, 기타 종자류 - 생과실(조건부 수출가능) : 감귤, 사과, 배, 핵과류, 고추, 가지 - 절화(조건부 수출가능) : 국화속(Chrysanthemum), 패랭이꽃속(Dianthus), 안개꽃속(Gypsophila), 미역취속(Solidago)의 절화

*출처: 2023 수출검역 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4.3.2 수출불가능품목

농산물	- Cocos nucifera의 섬유나 피트를 제외한 모든 유기질 상토 - 유럽위원회 시행 규정 (EU) 2018/2019에 따라 EU가 지정한 다음의 고위험식물(종자, 분재, 조직배양묘를 제외한 재식용 식물, 34속 1종) : Acacia Mill. Acer L. Albizia Durazz., Alnus Mill. Annona L. Bauhinia L., Berberis L. Betula L. Caesalpinia L., Cassia L. Castanea Mill. Cornus L., Corylus L. Crataegus L. Diospyros L., Fagus L. Ficus carica L. Fraxinus L., Hamamelis L. Jasminum L. Juglans L., Ligustrum L. Lonicera L. Malus Mill., Nerium L. Persea Mill. Populus L., Prunus L. Quercus L. Robinia L., Salix L. Sorbus L. Taxus L. Tilia L. Ulmus L. - 유럽위원회 시행 규정(EU) 2019/2072 부속서 6에 해당하는 식물(이하 등 21개 항목) : △분재가 아닌 향나무속(Juniperus), 편백나무속(Chamaecyparis Spach), 소나무속(Pinus)의 재식용 식물 △생과실을 제외한 포도속(Vitis) 식물 전체 △생과실, 종자를 제외한 금귤속(Fortunella), 탱자속(Poncirus), 감귤속(Citrus) 식물 전체 △밤나무속(Castanea) 식물의 수피

*출처: 2023 수출검역 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5 비관세장벽

5.1 | 라벨링제도

5.1.1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table>
<tr><td>라벨
표기사항
(항목)</td><td colspan="2">· 제품명
· 순중량
· 성분목록</td><td>· 유통기한
· 원산지
· 영양성분</td><td>· 알레르기 유발성분
· 사용방법
· 식품 사업자 정보</td></tr>
<tr><td rowspan="10">라벨
표기사항
(가이드)</td><td>표기 언어</td><td colspan="3">• 이탈리아로 표기되어야 하며, 유럽연합의 타 가입국 언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td></tr>
<tr><td>글자 크기</td><td colspan="3">• 글자 크기는 최소 1.2㎜이어야 함
• 단, 제품 면적이 80㎠미만의 경우 최소 0.9㎜ 이상이어야 함</td></tr>
<tr><td>제품명</td><td colspan="3">•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되 해당 관습적인 이름이 없는 경우 식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명칭(descriptive name)을 사용하여 표시</td></tr>
<tr><td>순중량</td><td colspan="3">• 리터(l), 센티리터(cl), 밀리리터(ml), 킬로그램(kg), 그램(g)을 포함하여 적정한 단위와 함께 표시</td></tr>
<tr><td>성분목록</td><td colspan="3">• 완제품의 5%이상의 원료에 한해 순중량 순으로 기재
• 2% 넘지 않는 성분은 뒤쪽에 표기
•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백분율과 함께 표시
• 가공 보조제, 캐리-오버에 해당하는 첨가물은 표시 생략 가능</td></tr>
<tr><td>유통기한</td><td colspan="3">• 섭취기한: Best before, Best before end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 순으로 표시
• 최소보존일: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 순으로 표시</td></tr>
<tr><td>원산지</td><td colspan="3">•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 표기할 것
• 최종 제품의 원산지와 최종 제품에 포함된 주 원료의 출처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원산지와 주원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td></tr>
<tr><td>영양성분</td><td colspan="3">• 열량,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단백질, 나트륨은 필수 기재
• 불포화지방, 폴리올, 녹말, 식이섬유, 비타민 및 무기질은 선택 기재
• 100그램(g)/100밀리리터(ml) 기준으로 표기할 것</td></tr>
<tr><td>알레르기 유발성분</td><td colspan="3">• 알레르기 유발성분: 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계란, 어류, 두류, 유제품, 견과류, 셀러리류, 겨자, 참깨,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제품, 루핀, 연체동물
•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표시</td></tr>
<tr><td>사용방법</td><td colspan="3">• 식품에 필요한 보관조건 및 사용 조건이 필요한 경우 그 조건을 표시
• 조리예시가 없어 적절한 식품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법을 명시</td></tr>
<tr><td>식품 사업자 정보</td><td colspan="3">•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표시</td></tr>
</table>

5.1.2 라벨링 예시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Kimchi Yangban	양반 김치
원재료	Chinakohl 75% Wasser Frühlingszwiebeln scharfe Peperoni Zucker Salz Knoblauch Ingwer Geschmacksverstärker:Mononatriumglutamat	배추 75% 물 파 고추 설탕 소금 마늘 생강 향미료:글루타민산일나트륨
보관방법	Nachdem Öffnen kühl aufbewahren	개봉 후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영양 성분	Nährwerte pro: 100g - Brennwert: 126kJ/ 30kcal - Fett: <0.5g - davon gesättigte Fettsäuren: <0.1g - Kohlenhydrate: 5.0g - davon Zucker: 3.0g - Eiweiß: 1.0g - Salz: 1.2g	100g 당 영양성분 - 열량: 126kJ/ 30kcal - 지방: <0.5g - 포화지방: <0.1g - 탄수화물: 5.0g - 당류: 3.0g - 단백질: 1.0g - 소금: 1.2g
수입업체 정보	Kneyenhop & Kluge GmbH & Co. KG Industriestraße 40-42, 28876 Oyten, Germany	크라이엔호프 & 클루게 GmbH & Co. KG 산업거리 40-42, 28876 오이텐, 독일
유통기한	2023.06.03	
원산지	한국	

▌5.2 | 인증제도

① 유럽채식협회(V-Label)

유럽채식협회 인증은 EU의 대표적인 채식 인증 제도로 유럽 회원국에서 통용됨. 유전자조작(GMO) 제품 및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인증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인증명	유럽채식협회 (V-Label)	인증로고	
발행·검사기관	유럽채식협회 (EVU)	필수 여부	선택
목적	제품이 비건임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		
취득절차	인증신청 → 제안서 제공 → 제안서 승낙 → 현장심사 → 결과통보		
필요서류	기업정보 및 연간매출액, 인증 신청한 제품 수, 신청한 제품에 대한 전년도 판매 매출액, 신제품일 경우 향후 1년간 예상 매출액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조:「2023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정보종합가이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지리적표시(GI)

EU의 지리적 표시 인증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고유한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 제도로, 원산지 표시 보호(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전통 특산물 보증(TSG)으로 나뉜다. 유럽연합 회원국과 동등성을 인정받은 역외국에서 통용될 수 있으며 한-EU FTA 협정에 따라 한국 지리적 표시(PGI)를 등록할 시 EU 내에서 지리적 표시(GI) 인증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각 인증 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품목, 근거 규정, 자격 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증 취득 전에 취득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인증명	지리적표시(GI)	인증로고	원산지 표시 보호 (PDO) 지리적 표시 보호 (PGI)
발행·검사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필수 여부	선택
목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고유한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		
취득절차	인증신청(국내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 → 심사(국내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 → 유럽위원회 송부 → 심사 및 관보 공개 → 이의제기 및 상호합의 → 지리적 표시 등록		
필요서류	출원서와 상품명세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조:「2023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정보종합가이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 EU 유기농 인증

EU 내에서 생산된 모든 유기농 농산물 인증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은 올바르게 표시된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 유럽에서 생산된 미포장 유기농 식품 또는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들은 자발적으로 이 새로운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2015년 유럽연합과 한국은 유기가공식품에 관한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인증명	EU 유기농 인증(Euro-leaf)	인증로고	
발행·검사기관	농관원 지정 인증기관	필수 여부	선택
목적	EU 내에서 생산된 모든 유기농 농산물 인증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		
취득절차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필요서류	인증신청서,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조:「2023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정보종합가이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 Global Gap(우수 농산물 기준: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lobal Gap은 AF(농업 및 어업), CB(작물), FV(과일 및 채소) 세 가지로 구성되며, 농화학과 의약품 투입의 최소화 촉진 및 농장보증체계 채택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유효인증기간은 1년이며, 따로 인증마크는 없다. 26개 대분류, 23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가장 방대한 인증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인증명	Global Gap (우수농산물 기준: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로고	
발행·검사기관	FoodPLUS	필수 여부	권장
목적	농화학과 의약품 투입의 최소화 촉진 및 농장보증체계 채택을 활성화하려는 목적		
취득절차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 심사 → 결과 통보		
필요서류	인증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조:「2023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정보종합가이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⑤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Food Standard

BRC 인증은 Global Food Standard, Storage and Distribution, Packaging 등 여러 가지 인증 체계를 운영 중임. BRC Food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제조업체의 안정성, 품질,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됨. 이 인증은 유통망 내

가공 및 유통되는 모든 업체들의 제품을 이해하고, 식품 안전 위험을 식별하여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음

인증명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Food Standard	인증로고	
발행·검사기관	BRC	필수 여부	선택
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제조업체의 안정성, 품질,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하기 위함		
취득절차	인증의뢰 → 현장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 → 인증 발급 → 사후심사		
필요서류	인증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조:「2023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정보종합가이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⑥ FSSC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22000, 식품안전체계인증)

FSC22000 인증은 ISO22000을 기반으로 하여 더 빠르게 보급되었다. 위해요소분석 중점관리기준(HACCP)도 포함되어 있어,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 심사원의 심사로 인한 비용 절감, 갱신 주기에 따른 차후 비용 절감 등 다른 인증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많아 식품업계에서 선호도가 높다.

인증명	FSSC22000	인증로고	
발행·검사기관	GFSI	필수 여부	선택
목적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취득절차	인증신청 → 1차 심사 → 2차 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 인증발급		
필요서류	인증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조:「2023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정보종합가이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3 | 통관거부사례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2023년 유럽연합의 한국산 통관거부사례는 총 6건으로 집계되어, 2022년 13건 대비 7건(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연평균 13% 감소하였다.

2023년 전체 수입산 통관거부사례는 총 2,760건으로 집계되어, 2022년 2,814건 대비 54건(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연평균 3% 감소하였다.

<분기별 통관거부사례 동향(2023)>

(단위: 건, %)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전체 수입산 불합격 건수					
	연도			YoY(B/C)		CAGR	연도			YoY(B/C)		CAGR
	'21(A)	'22(B)	'23(C)	건수	증감률	(A/C)	'21(A)	'22(B)	'23(C)	건수	증감률	(A/C)
1분기	1	6	1	-5	-83	0	653	773	989	216	28	23
2분기	1	4	4	0	0	100	731	690	604	-86	-12	-9
3분기	5	1	0	-1	-100	-100	725	642	548	-94	-15	-13
4분기	1	2	1	-1	-50	0	834	709	619	-90	-13	-14
합계	8	13	6	-7	-54	-13	2,943	2,814	2,760	-54	-2	-3

*출처: 2023년 연간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 통관거부 상위품목

2023년 연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문제 사유가 확인된 한국산 통관거부 품목은 기타조제 농산품(50%)으로, 승인되지 않은 식품처가물 및 색소 성분 검출로 인한 성분 부적합 문제가 확인되어 통관거부되었다.

두 번째로 많은 문제 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면류(33%)로 라벨과 제출 서류가 불일치하여 통관거부 되었다.

<한국산 통관거부 상위품목 분석(2023)>

(단위: 건)

거부사유	주요 통관거부 품목		
	기타조제 농산품	면류	해조류
라벨링/포장	0	0	0
성분부적합	2	0	1
위생	0	0	0
서류미비	0	2	0
잔류농약 검출	0	0	0
기타	1	0	0

*출처: 2023년 연간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

2023년 연간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 사유는 총 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3.8% 감소하였다. 2023년 연간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 사유는 성분 부적합, 서류 미비와 기타 문제로 확인되며, 전년 대비 발생 건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2023년 연간 성분 부적합 관련 통관거부 문제 사유는 총 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2.5%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례의 가장 큰 비중(50%)을 차지하였다.

성분 부적합 문제는 주로 미승인된 성분 검출 및 기준치 이상의 성분 검출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수출 기업은 수출 전 유럽연합의 성분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2023)>

(단위: 건, %)

거부사유	2021년 연간		2022년 연간		2023년 연간		YoY(22/23)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증감률
라벨링/포장	0	0.0	1	7.7	0	0.0	-1	-100.0
성분부적합	8	100.0	8	61.5	3	50.0	-5	-62.5
위생	0	0.0	1	7.7	0	0.0	-1	-100.0
서류미비	0	0.0	1	7.7	2	33.3	1	100.0
잔류농약 검출	0	0.0	1	7.7	0	0.0	-1	-100.0
기타	0	0.0	1	7.7	1	16.7	0	0.0
합계	8	100.0	13	100.0	6	100.0	-7	-53.8

*출처: 2023년 연간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4 | 비관세장벽 이슈

[라벨링]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포장 전면(FOP)의 영양 라벨 표시 기준 종합 (1)

포장 전면(FOP, Front of Package) 영양 라벨은 식품 포장의 앞면에 기호, 색상 코드, 기타 그래픽 형식을 사용하여 필수 영양소의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이다. 이는 국가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식품 영양 정보 표시 기준과 함께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식품 라벨링 제도로, 국가마다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의 종류, 표시 방식 및 의무 적용 여부가 다름. 이에 한국 식품 기업이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제도 시행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755&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srchWord=%EC%9C%A0%EB%9F%BD%EC%97%B0%ED%95%A9&page=2&srchGubun=427

[규정·제도]

한국산 닭고기·수산물·꿀 제품유럽연합 수출 자격 유지

2024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EU)의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관련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722&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srchWord=%EC%9C%A0%EB%9F%BD%EC%97%B0%ED%95%A9&page=1&srchGubun=427

[규정·제도]

EU 반입을 위한 동물 건강증명서 및 공식증명서 규정 개정(2024년 7월 29일 발효)

2024년 7월 9일,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범주의 동물 및 물품의 유럽연합 반입 및 유럽연합 내 이동에 대한 동물 건강증명서, 공식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의 양식에 관한 공식 인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시행규정' 「(EU) 2020/2235」을 개정하여 「(EU) 2024/1874」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692&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srchWord=%EC%9C%A0%EB%9F%BD%EC%97%B0%ED%95%A9&page=1&srchGubun=427

[라벨링]

꿀, 과일주스, 잼, 유제품 등의 라벨링 기준을 강화한「아침식사 지침」개정안 발표

2024년 5월 14일, 유럽 의회는 지난 2023년 12월 12일 채택한 「아침식사 지침(breakfast directive)」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꿀, 과일주스, 과일잼류 품목의 라벨링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건조 우유(partly or wholly dehydrated preserved milk) 품목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의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321&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srchWord=%EC%9C%A0%EB%9F%BD%EC%97%B0%ED%95%A9&page=1&srchGubun=427

[규정·제도]

포장재 저감·재사용·재활용 규칙 채택(2030년 1월 1일 시행)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EP)는 EU 회원국 내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포장재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 해당 규칙은 포장재를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재사용 및 개별 용기 사용 장려, 보증금 반환 시스템 도입,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095&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srchWord=%EC%9C%A0%EB%9F%BD%EC%97%B0%ED%95%A9&page=1&srchGubun=427

[라벨링]

벌꿀, 과일주스, 과일잼류의 라벨링 기준을 업데이트하는「아침식사 지침」개정안 채택

유럽의회는 소위 「아침식사 지침(breakfast directive)」으로 불리는 유럽연합 마케팅 표준의 개정안을 채택하고, 식품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벌꿀, 과일주스, 과일잼류 제품의 라벨링 기준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207&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srchWord=%EC%9C%A0%EB%9F%BD%EC%97%B0%ED%95%A9&page=1&srchGubun=427

[위생·안전]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성분 기준 종합 공고

유럽연합 회원국은 한국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며, 한국에서 수출된 식품의 성분

부적합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국가임. 특히 유럽연합은 성분 부적합 문제로 인해 한국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한 바 있으므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잔류농약 검출 기준에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044&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srchWord=%EC%9C%A0%EB%9F%BD%EC%97%B0%ED%95%A9&page=1&srchGubun=427

[라벨링]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2023년 1월~ 8월까지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슬로베니아로 수출된 면류 제품과 독일로 수출된 건조 김 제품이 라벨링 결함 문제가 확인되어 통관 거부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한국 식품 기업이 유럽연합 국가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906&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srchWord=%EC%9C%A0%EB%9F%BD%EC%97%B0%ED%95%A9&page=1&srchGubun=427

[규정·제도]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채택

2023년 10월 24일,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ENVI)는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포장재와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2)」에 대한 입장문을 최종 채택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905&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srchWord=%EC%9C%A0%EB%9F%BD%EC%97%B0%ED%95%A9&page=1&srchGubun=427

[라벨링]

식품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유럽연합은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물성 식품보충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관련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입 요건이 추가된 바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으로 건강 기능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식품보충제' 관련 규정에 주의해야 하며, 식품보충제의 성분 기준과 함께 라벨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782&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srchWord=%EC%9C%A0%EB%9F%BD%EC%97%B0%ED%95%A9&page=1&srchGubun=427

[위생·안전]

식품첨가물 아질산염 및 질산염 사용 기준 강화(2023년 10월 29일 발효)

2023년 10월 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2023/2108」을 통해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No 1333/2008」의 부록 II 및 위원회 규정 「(EU) No 231/2012」의 부록을 개정하고 식품첨가물인 아질산염(nitrites, E249-250) 및 질산염(nitrates, E251-252)의 사용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23년 10월 29일부터 치즈류, 열처리되지 않은 육류, 열처리된 육제품, 연체동물 및 갑각류를 포함된 가공 어류 및 수산물 제품에 대한 아질산염 및 질산염 사용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약 2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777&menu_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srchWord=%EC%9C%A0%EB%9F%BD%EC%97%B0%ED%95%A9&page=1&srchGubun=427

[라벨링]

식품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표시기준종합공고

유럽연합은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물성 식품보충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관련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입 요건이 추가된 바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으로 건강 기능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식품보충제' 관련 규정에 주의해야 하며, 식품보충제의 성분 기준과 함께 라벨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782

[위생·안전]

식품첨가물 아질산염 및 질산염 사용 기준 강화 (2023년 10월 29일 발효)]

2023년 10월 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2023/2108」을 통해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No 1333/2008」의 부록 II 및 위원회 규정 「(EU) No 231/2012」의 부록을 개정하고 식품첨가물인 아질산염(nitrites, E249-250) 및 질산염(nitrates, E251-252)의 사용 기준을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777

[라벨링]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포장 정면(FOP)의 영양 라벨 표시 기준 종합

포장 전면(FOP, Front of Package) 영양 라벨 표시는 국가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식품 영양 정보 표시 기준과 함께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식품 라벨링 제도로, 국가마다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의 종류, 표시 방식 및 의무 적용 여부가 상이하다. 이에 한국 식품 기업이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제도 시행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755

[위생·안전]

특정 식품 내 니코틴 최대 잔류 함량 개정(2023년 9월 15일부터 적용)

유럽연합위원회는 차, 장미 열매, 씨앗 향신료, 과일 향신료, 계피 내 니코틴 성분의 최대 잔류 함량을 수정하는 개정안 (EU) 2023/1536을 공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581

[규정·제도]

국경통제소에서 공식 통제가 면제되는 복합식품 목록 개정안 발표(2023년 9월 21일 발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위임규정 「(EU) 2021/630」의 '국경통제소(BCPs, Designated Border Control Posts)에서 공식 통제(official controls)가 면제되는 복합식품 목록'을 확대한 개정안 「(EU) 2023/1674」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539

[규정·제도]

2023년 7월부터 한국의 즉석 면류 제품 수입 시 에틸렌옥사이드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단, 수입 검사율은 20% 이상 유지)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8일 「특정 제3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의 공식 통제 및

비상조치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보완 규정」 (EU)2019/1793을 수정하는 (EU)2023/1110을 공식 관보로 발표했다. (EU)2023/1110에는 한국산 즉석 면류 제품에 적용되었던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관련 수입 규제 강화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즉석 면류 제품은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증명서 제출 요건이 2023년 7월부터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015

[규정·제도]

2023년 6월 29일부터 산림 벌채로 생산되는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시행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9일 산림 벌채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 내 판매와 수출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을 공식 관보로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014

[위생·안전]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

2023년 3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A(BPA, Bisphenol A)를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770

[라벨링]

음료류의 식품 영양등급 표시제(뉴트리스코어) 조정안 발표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식품 영양등급표시제 운영위원회는 음료류를 대상으로 현재 식품 기반 영양권장사항에 따라 등급을 책정하는 뉴트리스코어 알고리즘 조정안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tradeBarrierView.do?board_seq=97661&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3&srchGubun

[규정·제도]

단백질 가수분해물로 제조된 영아 및 성장기용 조제식의 단백질 요건에 관한 위임규정 개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 제조된 영아용 및 성장기용 조제식의 단백질 요건에 관한 위임규정(EU) 2016/127의 개정을 고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tradeBarrierView.do?board_seq=97443&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3&srchGubun

[기타]

유럽소비자기구, 식음료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탄소 중립' 강조 표시 금지 요구

유럽소비자기구는 2023년 3월 9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식음료 제품을 포함해 모든 제품에 '탄소 중립' 강조 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418

[위생·안전]

특정 식품 내 비소(arsenic)의 최대 수준 개정 공고(규정(EU)2023/465)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특수의료용도 조제식 및 유아 조제식 내 비소 최대수준이 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tradeBarrierView.do?board_seq=97354&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3&srchGubun

[위생·안전]

특정 식품에 대한 아바멕틴(abamectin)의 최대 잔류 허용 수준 수정(규정 (EC)No 396/2005)

△셀러리 △딸기 △껍질 있는 콩, 완두콩 △토마토 등 특정 품목의 아바멕틴 최대 잔류 허용 수준이 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tradeBarrierView.do?board_seq=97354&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3&srchGubun

[위생·안전]

아족시스트로빈을 포함한 4가지 농약 성분의 잔류한계 기준치 수정

유럽식품안전청은 특정 식료품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프로술포카브(prosulfocarb), 세닥산(sedaxane),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의 잔류한계 기준치(MRL)를 수정하여 공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tradeBarrierView.do?board_seq=97056&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4&srchGubun

[위생·안전]

특정 식품에 대한 사이로마진, 토프라메존, 트리플루미졸의 잔류한계 기준치 변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정 식품 내 사이로마진(Cyromazine), 토프라메존(Topramezone),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성분의 잔류한계 기준치(MRL)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규정의 부속서 I, III 및 V을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tradeBarrierView.do?board_seq=97007&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4&srchGubun

[규정·제도]

베이커리 및 스낵 산업, EU의 새로운 포장 요건 준수를 위한 관리 정책 고안

베이커리 및 스낵 제조업체는 유럽연합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D) 최종 채택 시, 업계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포장 관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tradeBarrierView.do?board_seq=96921&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4&srchGubun

[규정·제도]

유기농 소금의 생산 기준을 추가한 규정 (EU) 2018/848의 수정 초안 공고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기농 천일염(organic sea salt) 및 유기농 소금류(other organic salts)의 생산 기준을 추가한 규정 (EU)2018/848(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 및 라벨링) 수정 초안을 공고하고, 2023년 1월 4일까지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794

[위생·안전]

동물성 식품에 대한 과불화옥테인술폰산 성분 MRL 설정 공고

유럽 식품안전국은 농약 성분인 포스맷(phosmet)의 위해성 평가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갭을 고려하여 일부 식품 품목에 적용되는 포스맷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치(MRL)를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tradeBarrierView.do?board_seq=96766&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5&srchGubun

[위생·안전]

사과, 배 등 일부 품목의 포스맷 성분 MRL 수정 제안

유럽 식품안전국은 식품 접촉 물질에 사용되는 과불화옥테인술폰산 성분(Perfluoroalkyl, PFASs)이 식품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성분의 식품 내 최대 잔류량에 대한 기준(MRL)을 설정하여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tradeBarrierView.do?board_seq=96766&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5&srchGubun

[기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음료의 법적 프레임워크 요구

과학자들은 건강 위험이 있는 에너지 음료의 활성 성분 최대치와 용량 크기를 규제하고, 라벨링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프레임워크 및 관련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tradeBarrierView.do?board_seq=96687&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5&srchGubun

[규정·제도]

수산물 등에 적용되는 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 요건 수정 공고

유럽연합 위원회는 《규정(EU) 2019/624》의 쌍각류 조개류(bivalve molluscs)에 관한 부분과 수산물, 알류, 일부 고정제 제품(highly refined products, 히알루론산, 키토산, 글루코사민 등)에 관한 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 요건 《규정(EC) 853/2004》의 부속서 III을 개정한 《규정(EU) 2022/2258》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546

[기타]

합성 살충제의 사용을 2025년까지 완전 중지하는 시민 안건이 법안 채택 요건 충족

Initiative) 안건이 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럽위원회 및 의회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한 요건(임계값)을 충족함. 해당 안건은 농경지의 합성 살충제의 사용을 2030년까지 80%, 2035년까지 100%로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자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kati.net/board/tradeBarrierView.do?board_seq=96358&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5&srchGubun